

李 후방지원 나선 김혜경… 등판 고심중인尹의 김건희

대선후보 배우자 공개활동

김혜경씨, 낙상사고 이후 일정 재개
선대위서 배우자실 신설, 언론대응

김건희씨, 각종의혹에 부담 클 듯
선대위 출범식서 활동 시작할 전망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선 정국 초반인 상황에서 이 후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후방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등판 일정을 고심 중인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은 선대위의 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중 유세나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아닌 경우, 대선 후보자와 따로 움직이며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한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호남의 민심을 얻고자 호남 일정을 집중적으로 잡으며 경선 후보 배우자들과 함께 봉사활동과 국민 접촉에 집중했다.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다. 김혜경 씨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와 함께 참석했으나 지난 9일 낙상사고를 겪으며 한동안 공개

일정을 자제했다.

김혜경 씨는 18일에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부터 이 후보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공개 일정을 재개했다.

김혜경 씨는 또한 19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이 후보의 대전·충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 동행해 자신의 아버지 고향인 충청에서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의 본격적인 활동과 이 후보 후방 지원을 위해 선대위 차



2019년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9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원의 배우자실을 신설하며 언론 대응 및 일정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혜 민주당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 시민들께서 이 후보의 즉흥 연설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섬세하게 주변을 챙기는 모습을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배우자실은 김혜경 씨의 친화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 속에 녹아 들어가 이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 5일 윤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공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씨는 민주당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허위력 의혹을 비롯해 윤 후보 장모 최 씨의 의혹까지 여론에 민감한 사안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공개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우자실과 유사한 선대위 차원의 본부를 신설해 김건희 씨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대위가 출범 전이기 때문에 후보 배우자의 등판에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선대위 출범 전까지는 후보 비서실장 측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한 자리에 모여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뉴스1

〈이재명〉

〈윤석열〉

“기회의 총량 확대” vs “새 리더십 대통령”

李·尹, 국가 미래비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한 자리에 모여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양극화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방향 설정·연대·책임·통합·국제 협력·미래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확립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위커향 호텔에서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국가미래비전에 대한 발표를 했다. 두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 10분이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 후보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기

득권을 가지게 된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년들은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지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된 ‘적정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과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발표의 초점을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에 맞췄다. 윤 후보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대의 리더십’에서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 ‘책임의 리더십’에서 최고 전문가의 대응, ‘통합의 리더십’에서 국민과의 소통, ‘글로벌 리더십’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미래 개척의 리더십’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文, 부동산·일자리 주요정책 기조 유지할 듯

국민과의 대화 마친 文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세 접어들어
마지막까지 해결 실마리 찾겠다”

“기업이 중심되고 정부서 지원
청년이 좋은 일자리 얻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직접 대화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확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남은 기간 정부는 (부동산)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서민 피해 및 상대적 박탈감을 말한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민간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확대 관련 대책으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은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11월 기준 삼성(3만 개), KT(1만2000개), LG(3만9000개), SK(2만7000개), 포스코(2만5000개)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현대차가 22일 정부와 함께 향후 3년간 4만6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민과 대화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양적으로 그렇고,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

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라 보고, 청년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관련 방역 수칙을 당부하고, 백신 추가접종 속도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국민 질문에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달리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질문 속에는)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항상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국민과 대화에서 일부 나온 정부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수정해 나갈 것이라 고 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